

## “공공 광주의료원 접근성 확보가 최우선”

광주시, 250병상 규모 추진  
후보지 4곳 대상으로  
신축·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방역전문가·의료인들  
“접근성 떨어지면 애물단지”

공공 '광주의료원' 설립을 추진중인 광주시가 '신축'과 '리모델링'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시는 4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설립타당성 조사 용역 절차를 밟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설립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 방역전문가와 의료인들 사이에선 “공공 의료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축과 리모델링 여부를 떠나 접근성이 뛰어나야 한다”면서 “접근성을 후순위에 놓고 예산절감 등에만 초점을 맞춘 광주시의 행정행위는 적절치 않다”며 대상지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4년까지 250여 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 11일 설립타당성 조사용역 계약을 관련 부서에 의뢰하고, 내달까지 사전규격공개 및 입찰 공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 계약체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신축과 기존 건물 리모델링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후보지 4곳을 압축한 상태다.

시는 용역을 통해 최종 후보지가 확정되면 곧바로 의료원 설립 협의서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용역 등 준비에만 5~6년이 소요되지만, 면제조치만 있으면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산 등 감염병 질환 사태가 엄중한 상황이지만, 예타가 면제되더라도 신축시엔 병원 완공까지 빨라도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신축비용 마련도 부담이다. 정부에서 신축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나머지 50%의 공사비에다 수백원대의 의료기기 구입비, 부지매입비까지 1000억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광주시가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비용을 줄이고 공사기간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 의료시설을 리

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광주시는 현재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중인 빛고을 전남 대병원 건물과 인근 부지를 공공의료원 리모델링 적합지로 정하고, 후보지 4곳 중 한 곳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해당 병원을 리모델링 할 경우 수백억원대의 예산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있는 반면 병원 규모는 100병상(최대 150병상)대로 축소되고, 기존 건물의 동선 구조 등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특히 병원이 주요 도심과 5km 넘게 떨어진 외곽에 위치한 점은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20일 ‘광주의료원 설립추진을 위한 제3차 민간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참석 의료인들은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신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역의 한 의료인은 “접근성이 좋고, 최신 시설을 갖춘 미래형 의료시설을 신축해야만 개관 후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리모델링이 거론되는 병원의 경우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탓에 접근성이 좋지 않고, 이 때문에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료인도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게 될 공공의료원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한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개관하더라도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는 성급하게 대상지를 정할 게 아니라, 시민과 지역사회, 정치권 등의 뜻을 모아 최적의 장소를 찾아내고 부족한 예산은 정부 설득 등을 통해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광산구와 서구 경계지역 등 4곳을 후보지로 놓고 용역의뢰 절차를 밟고 있으며, 후보지 모두 의료인들이 요구하는 접근성이 뛰어난 장소는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의료원은 필수 의료 진료 및 치료,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감염병 등 재난·응급상황에서 직접 대처 및 의료기관 간 가교·지원하는 역할 등을 맡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농촌·섬 떠나는 교사들…대체 교사도 없다 ▶7면

복스-‘홀로 선 자들’ ‘호구의 사회학’ ▶14·15면

캠핑에 스프링캠프 ‘폭설·한파 걱정없어요’▶18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문서에 첫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마치고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취임 선언문, 내각 지명서, 하위 내각 지명서 등 3가지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미동맹 강화·한반도 평화 위해 함께 갈 것”

문 대통령, 바이든 취임 축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문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화합과 재건의 메시지가 미국민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다”며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통합과 번영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기후변화, 경제 위기 등 산적한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여정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흔들림 없는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만나 우의와 신뢰를 다지고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핵심대화 회를 나누길 기원한다”며 한미 정상회담 조기 성사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축하 글을 올리며 “미국이 돌아왔다. 미국의 새로운 시작은 민주주의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적었다. 또 “하나 된 미국(America United)을 향한 여정을 우리 국민과 함께 성원한다”며 “바이든 정부의 출발에 한국도 동행합니다. 같이 갑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미국이 위기와 도전의 순간을 맞고 있다”며 “통합이 전진길”이라며 화합과 단결을 호소했다.

/임동욱 기자 tuim@연합뉴스

## 공수처 공식 출범… 김진욱 처장 “국민 신뢰 받겠다”

현판 제막식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현판 제막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관련기사 4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이날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빛속에서 치러진 현판식에서 추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다”며 “많은 분이 걱정의 날밤을 보냈을 것”이라고 감회를 밝혔다. 그는 “공수처 출범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촛불 국민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정부 공약에

대한 마침표를 찍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일부 허물었다는 것도 출범 그 자체의 의미”라며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으로서 최첨단에 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 처장은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초석이나 마 없는 심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에서 “공수처는 정치로부터 중립과 기존 사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법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이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와 검찰·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라며 “검정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처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김 처장은 수사처 규정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비판받아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IOPE  
RETINOL EXPERT  
RETINOL 0.1%  
NEW

2weeks  
고함 고함 세상이 놀라게 할 수 있는 동안만!  
IOPE LAB

### 슈퍼레티놀 단 2주 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 IOPE

\*만 40~59세 성인 여성 (연령 2019.09.16~10.17) 17명(평균)의 임상연구 결과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